

미리가본 西紀 2000年

컴퓨터 編輯時代 열려

西紀 2000年の 出版分野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그 가장 주된 까닭은 技術이나 科學文明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忍苦의 세월속에서 出版 활동에 사회·문화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계속돼 왔었기 때문이다.

西紀 2000년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책에 대한 관심이 지난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것도 出版이 활기를 띠게 된 큰 이유중의 하나다.

수준높은 良書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자연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相乘效果를 빚게되는 현상과 더불어 국민들의 讀書慾이 높아진 것이다.

西紀 2000年の 出版社들은 앞을 다투어 出版의 新技術 導入에 熱을 올리고 있다.

原稿의 작성과 정리, 組版, 레이아웃을 모두 컴퓨터가 해내고 있다. 이에 따라 出版社의 編輯者들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원고를 교정할 뿐만아니라 무수한 입력자료 중에서 필요한 인쇄 슬라이드나 삽화를 골라쓰고 있다.

또한 인쇄방법에 있어서도 특수 인쇄물에만 이용되던 그래픽아 인쇄 방법이 웅셋인쇄와 나란히 활용됨으로써 인쇄의 정밀도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특히 出版界의 오랜 숙원이던 도서관법이 제

정되어 시민 자율기구에서 불량서적으로 판정된 것이 아니면 어떤 책이거나 5천권을 구입, 전국의 각급 도서관에 비치하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出版社들은 良書 發刊에 스스로 앞장 서고 있다.

스포츠도 尖端科學化

西紀 2000年을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따뜻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自然과 친숙해지기 위해 스포츠를 즐기고 있다.

특히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고 운동부족에서 오는 체력 보강을 위해서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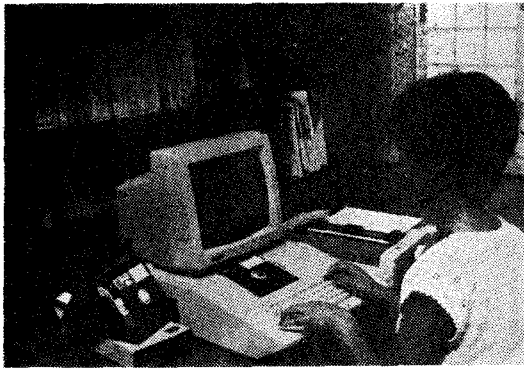
西紀 2000年에는 스포츠科學이 고도로 발달해 있다.

연구 대상도 과거 젊은 선수 중심에서 남녀 노소는 물론 신체장애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국제 대회가 빈번해짐에 따라 先進國에서는 尖端科學까지 스포츠에 導入하여 스포츠도 戰爭을 방불케 하고 있다.

西紀 2000年の 스포츠科學은 스포츠종목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에너지源까지 개발하고 있다.

그것도 경기 직전 또는 경기 도중 흡수가 매우 빠르고 빠른 시간 내에 에너지化할 수 있으며 경기 후에도 피로회복 시간을 놀랍게 단축

- …………西紀 2000년에 거는 기대는 실로 크다. 앞으로 14年 동안 科學文明은 지…………○
- …………난 1世紀에 버금가는 發展을 가져와 西紀 2000년에는 상상지도 못한 事實…………○
- …………들이 現實化될 것이라고 야단들이다. ……………○
-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發展된다는 것인가. ……………○
- …………本誌 編輯者は 14年을 건너뛰어 西紀 2000年으로 달려가 보았다. ……………○
- …………西紀 2000年. 編輯者が 달려간 西紀 2000年은 과연 1986年을 살던 사람…………○
- …………들이 야단을 떨만도 했다. 한마디로 發明科學文明 王國을 이루고 있었다. ……………○
- …………西紀 2000年의 모습을 分野別로 스케치해 보았다. ……………○
- …………編輯者 註…………○



電子新聞의 등장

西紀 2000年에도 지금과 같은 기존의 라디오 및 TV放送이 있고 여기에 音聲多重放送·文字 및 靜止畫面放送·케이블 TV·케이블라디오·AM 스테레오放送·4채널 스테레오放送·警報放送·직접위성放送 등이 있다.

또한 기존의 라디오 및 TV放送도 西紀 2000年에는 민영 상업방송들이 소지역 단위로 생겨 채널 수가 크게 늘었으며, 여기에 채널 용량이 수십개인 동축 케이블이 등장하여 독특하고도 다양한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이 공급되고 있다.

또 직접 위성放送이 등장, 바야흐로 지구촌 시대를 만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한편 文字放送은 표준 TV 放送에 多重시킬 경우에는 1백여 페이지의 정보밖에 전달할 수 없지만 전체널을 이용하게 된다면 5천~수만 페이지 정보로 늘어나고 더우기 고품위 TV 畫面에는 기존 TV의 4배인 5백자에 가까운 文字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電子新聞 및 雜誌가 등장한 것이다.

따라서 관심있는 페이지는 즉석에서 「프린트 아웃」하여 신문처럼 읽을 수도 있다. <우>

<編輯室>

시킨다.

특히 이 에너지源은 약물검사에도 위반되지 않으며, 또 체내에 흡수되면 근력·지구력·조정력·집중력·피로회복 등에 놀라운 향상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인체에는 전혀 해롭지 않은 완벽에 가까운 에너지源으로 평가되고 있다.

西紀 2000년에는 스포츠生理學과 스포츠醫學도 방향이 전환되었다. 즉 스포츠生理學은 체력증진에서 인간의 운동수행 능력 한계 극복으로, 스포츠醫學은 선수들의 부상방지와 빠른 회복에서 부상방지를 위한 도구의 개발과 함께 부상방지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방법 및 신속한 회복법 등의 개발로 전환되었다.

또 스포츠科學 分野에서 스포츠心理學도 그 인기가 대단하다. 스포츠心理學이란 인간이 체내의 에너지를 일시에 발휘하여 획기적인 기록의 향상을 꾀하는 연구를 말한다.